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혹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대여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빛가족	40 아육정 PD의 요리인류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네트워크 특선 춘춘춘	1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재)	00 그린실버 고행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12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0 생생정보 스페셜	10 꾸러기 식자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55 날씨와 생활
2	00 TV아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엄마의 탄생(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00 넷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40 남도 스페셜(재) 50 바르셀로 고요할(재) 55 튜튼생활체조	45 후토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40 문화 4색	00 SBS 뉴스 10 꾸러기 탐구생활 스페셜(재)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우치원 공다공	25 MBC 일일특별기획 (알구정 백야)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존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검정고무신4 40 동물의 세계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 가장 이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 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토크 따따따 20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가족을 지켜라	30 반려동물극장(단짝)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알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kbc 창사 20주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순천만 옥두루미의 비상)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30년 가정의 달 기획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00 월화 특별기획 (화정)	00 월화드라마 (몽문으로 들었소)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3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시상 10주년 (안현수, 두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1부)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40 모큐드라마(싸인)(재)	00 KBS 뉴스 15 해외걸작드라마(삼총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24 4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5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만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크쇼 부부 - 고수다	14:45 미앤마이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류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강의 노래 방글라데시)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21:30 한국기획 (오색 영산강)
07:30 출동! 슈퍼왕스(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50 EBS 다크극장 (교육 대동여지도)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2:45 달라졌어
08:00 당동명 유치원	12:05 지식채널e	16:45 골디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페루 문명기행)
08:20 두다다콩(재)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Why - 최고! 호기심딱지	
08:35 Why - 최고! 호기심딱지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고마 철학자 휴고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골디버스 타요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재)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1:40 " <문학-알파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B형>
02:30 " <미적분 I>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3:20 " <수학 1>	15:40 " <미적분 II>(재)
04:10 " <미적분 II>	16:30 " <수학 1>(재)
05:00 뉴탐스런 <물리>	17:20 " <미적분 II>(재)
06:00 " <생명과학>	18:10 뉴탐스런 <물리 I>(재)
06:50 " <동아시아사>	19:10 " <생명과학 I>(재)
07:40 "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30 2016 수능개념 <윤해정의 국어>	20:50 인터넷 수능
09:20 " <심주석의 수학>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A형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	21:50 " <문학A형>(재)
11:00 " <수학>	22:30 최태상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50 배움플러스	23:10 인터넷수능 <영어특해연습-종합>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국어 4-1>
07:3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1>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50 "	<국어 6-1>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8:00 TV 중학	<국어 5⑥>
09:10 TV 중학 <국어 1①②>	18:40 "	<수학 3(상)>
09:50 " <수학(상)>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10:30 " <역사 1>	20:00 EBS 기획특강	
11:10 " <국어 3④>	20:50 EBS 기획시리즈	
11:50 " <수학 2(상)>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12:30 실천취업가이드	22:00 등업신공	<과학 2(상)>
13:10 등업신공 <수학 1(상)>	22:40 "	<수학 3(상)>
13:50 " <과학 1(상)>	23:20 필독 중학	<사회 1>
14:30 " <수학 2(상)>	24:00 알기초 중학	<수학 1>
15:20 만점왕 <국어 3-1>	24:30 백점공략	<과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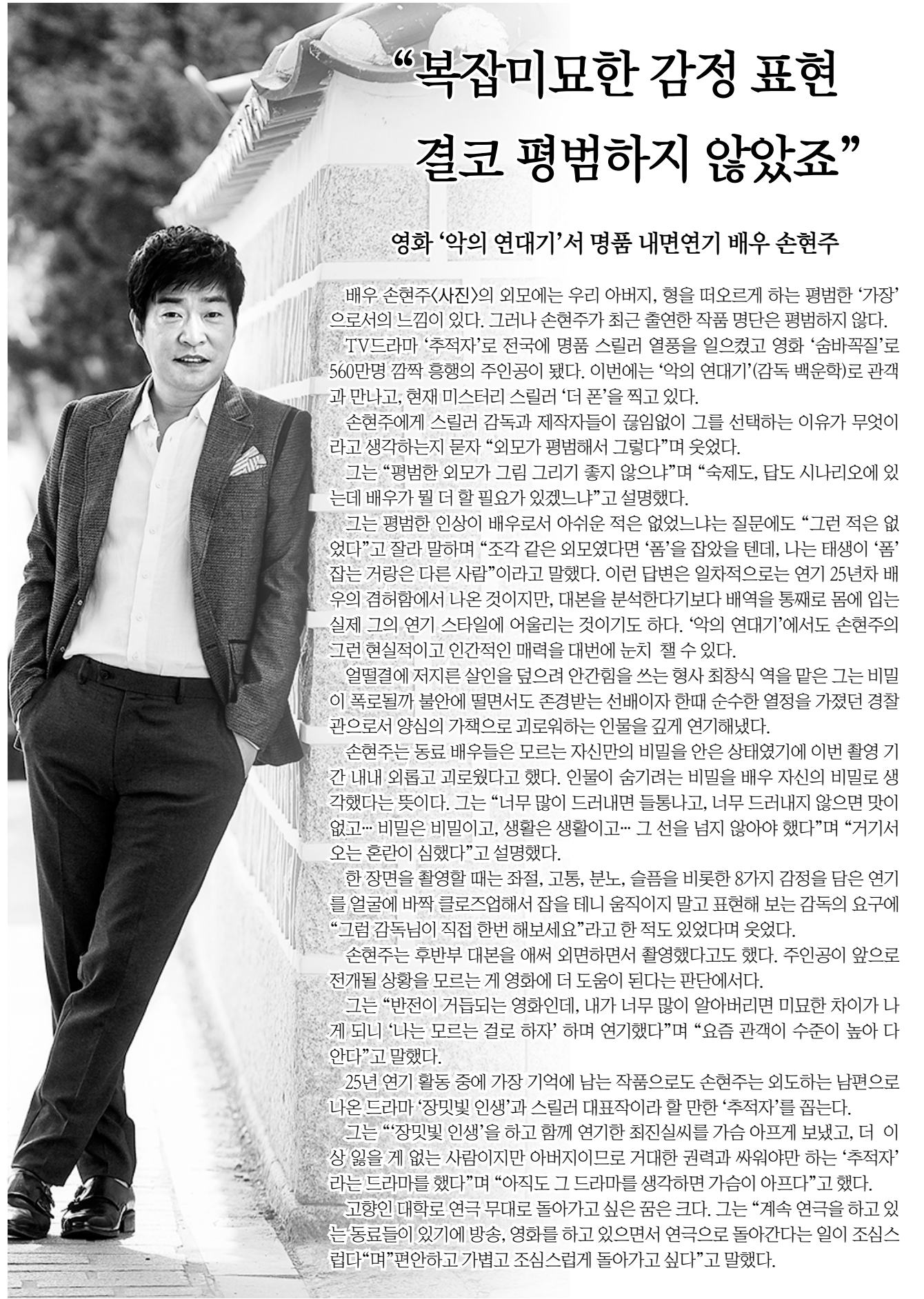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1일(음 3월 23일 丁亥)

子	48년생 보기에겐 시원찮았던 것이 한 문 하리라. 60년생 패해가 보이니 자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72년생 상대의 배려에 뜨겁게 감동 받게 되리라. 84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8, 94
丑	49년생 사실과는 거리가 멀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1년생 절대로 해결 될 것이니 절대로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73년생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85년생 좋은 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자. 행운의 숫자 : 84, 44
寅	38년생 사소하게 여겨 왔던 것 속에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다. 50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62년생 마지막을 주목하라. 74년생 새롭기는 하지만 기여도가 신통치 않다. 86년생 탄식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06, 53
卯	39년생 차선책까지 모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1년생 진면모를 파악하게 되리라. 63년생 순간적인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75년생 한 쪽으로 치우친 상태에 놓여 있다. 87년생 부담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59
辰	40년생 잘 유도해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52년생 헛수고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야겠다. 64년생 리듬을 살린다면 효과적이다. 76년생 예비분의 확보가 꼭 필요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0, 46
巳	41년생 추진할 수 있는 작기에 와 있으니 놓치지 말라. 53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알라. 65년생 가장 용이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낫다. 77년생 조려하는 이의 성의가 기록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3, 02

午	42년생 느낌의 미학을 인식해 보는 것도 괜찮다. 54년생 능률적인 계획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동세이다. 66년생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속히 조치하자. 78년생 집중 되어야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2, 08
未	43년생 지나 간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55년생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67년생 상대의 표정과 언행은 자신의 기술이리라. 79년생 귀한 이가 떠나거나 귀중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9, 17
申	44년생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날이다. 56년생 실제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68년생 노력과 성과는 정비례하는 법이다. 80년생 귀를 달라하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1, 25
酉	45년생 원칙을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치리라. 57년생 정답은 의외로 쉽게 찾아질 것이다. 69년생 국면을 전환시켜보려고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는 정황이다. 81년생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0, 33
戌	46년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라. 58년생 밝고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82년생 술선수범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4, 62
亥	47년생 공동으로 진행 했을 때 능률이 극대화 될 것이다. 59년생 양면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71년생 규칙적이고 역동적인 위상이다. 83년생 행을 어 거칠 것 없이 부드러운 운로이리라. 행운의 숫자 : 66, 8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복잡미묘한 감정 표현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영화 ‘악의 연대기’서 명품 내면연기 배우 손현주

배우 손현주(사진)의 외모에는 우리 아버지, 형을 떠오르게 하는 평범한 ‘가장’으로서의 느낌이 있다. 그러나 손현주가 최근 출연한 작품 명단은 평범하지 않다. TV드라마 ‘추적자’로 전국에 명품 스타일리얼 열풍을 일으켰고 영화 ‘숨바꼭질’로 560만명 깜짝 흥행의 주인공이 됐다. 이번에는 ‘악의 연대기’(감독 백은화)로 관객과 만나고, 현재 미스터리 스릴러 ‘더 폰’을 찍고 있다. 손현주에게 스릴러 감독과 제작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는지 묻자 “외모가 평범해서 그렇다”며 웃었다. 그는 “평범한 외모가 그림 그리기 좋지 않아요”며 “속제도, 답도 시나리오에 있는데 배우가 될 더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평범한 인상이 배우로서 아쉬운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은 없었다”고 잘라 말하며 “조각 같은 외모였다면 ‘폼’을 잡았을 텐데, 나는 태생이 ‘폼’ 잡는 거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런 답변은 일차적으로는 연기 25년차 배우의 겸허함에서 나온 것이지만, 대본을 분석하다기보다 배역을 통해 몸이 읽는 실제 그의 연기 스타일에 어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악의 연대기’에서도 손현주의 그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을 대변해 눈치 쫓아 준다. 열렬하게 저지른 살인을 덮으려 안간힘을 쓰는 형사 최창식 역을 맡은 그는 비밀이 폭로될까 불안에 떨면서도 존경받는 선배이자 한때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경찰관으로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인물을 깊게 연기해냈다. 손현주는 동료 배우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비밀을 안은 상태였기에 이번 촬영 기간 내내 외롭고 괴로웠다고 했다. 인물이 숨기려는 비밀을 배우 자신의 비밀로 생각했다는 뜻이다. 그는 “너무 많이 드러내면 들통나고, 너무 드러내지 않으면 맛이 없고... 비밀은 비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했다”며 “거기서 오는 혼란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면을 촬영할 때는 좌절, 고통, 분노, 슬픔을 비롯한 8가지 감정을 담은 연기를 얼굴에 바짝 클로즈업해서 잡을 테니 움직이지 말고 표현해 보는 감독의 요구에 “그림 감독님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 적도 있었다며 웃었다. 손현주는 후반부 대본을 예서 외면하면서 촬영했다고도 했다. 주인공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모르는 게 영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반전이 거둬지는 영화인데,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리면 미묘한 차이가 나게 되니 ‘나는 모르는 걸로 하자’ 하며 연기했다”며 “요즘 관객이 수준이 높아 다 안다”고 말했다. 25년 연기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도 손현주는 외도하는 남편으로 나온 드라마 ‘장미빛 인생’과 스릴러 대표작이라 할 만한 ‘추적자’를 꼽는다. 그는 “‘장미빛 인생’을 하고 함께 연기한 최진실씨를 가슴 아프게 보냈고, 더 이상 ‘일’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아버지처럼 거대한 권력과 싸워야만 하는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했다”며 “아직도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고향인 대학로 연극 무대로 돌아가고 싶은 꿈은 크다. 그는 “계속 연극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기에 방송, 영화를 하고 있으면서 연극으로 돌아간다는 일이 조심스럽다”며 “편안하고 가볍고 조심스럽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차이나타운’ 흥행가도 “붙어보자 어벤져스~”

개봉 열흘만에 100만 관객 돌파

지난달 영화 ‘차이나타운’ 언론시사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고경표는 “어벤져스, 까짓것 붙어 보자”고 힘차게 외쳤다. 이에 간담회장에서는 유쾌한 웃음이 터졌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한 ‘진담 반, 농담 반’의 패기 어린 목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어벤져스 군단은 3주째 국내 극장가를 점령했지만, 차이나타운 여두목의 기세도 놀라운 수준이다.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1000만명 돌파를 향해 돌진하고 있으며 ‘차이나타운’은 애초 여부족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쉽게 100만명을 넘어 손익분기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어벤져스2’는 여러 ‘최초’ 수식어를 새로 달면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외화로는 처음으로 하루 관객 100만명을 넘었고 역시 외화로는 가장 짧은 기간에 300만(4일), 500만(9일), 900만명(17일)을 돌파했다. ‘어벤져스2’는 현재 흥행 속도로는 ‘겨울왕국’을 제치고 역대 외화 2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바타’에까지 당을지자 관심사다. 흥행 돌풍은 떼어놓은 당상인 블록버스터의 경우 할리우드 배급사들이 제작 단계부터 개봉시기를 잡아두고 전 세계에 ‘선 전포고’를 한다. ‘어벤져스2’는 올봄 최대 기대작으로 사전 예고됐던 만큼 한 국영화와 외화를 막론하고 대작들은 경쟁을 알아서 피해 갔다. 어린이날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와 ‘약장수’ 같은 저예산 영화나 다양성 영화를 제외하고 ‘어벤져스2’와 같은 주에 개봉한 영화는 전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차이나타운’은 ‘어벤져스2’보다 한 주 늦게 개봉했다.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다 범죄를 소재로 한 누아르 영화다. 12세 이상 관람가 액션 블록버스터보다 흥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순제작비는 25억원으로 국내에서 제작되는 상업영화(작년 평균 43억8000만원)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 다양성 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CGV아트하우스가 배급을 맡고 있다. 극장 손님의 가장 큰 비중을 20~30대 젊은 여성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멋진 남자 배우가 아닌 ‘어배우 투톱 체제’ 영화는 관객 동원력이 약하다는 것이 영화계 통설이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은 개봉 열흘 만인 지난 8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9일까지 111만명을 모은 만큼 손익분기점인 124만명도 곧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나타운’의 흥행 요인 중에서는 먼저 김혜수<사진>·김고은이라는 두 여배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김혜수가 여성미를 강조한 전작들과 달리 외모를 망가뜨리는 분장을 마다하지 않고 조직의 보스 역할을 맡았다는 점, 충무로에서 주목받는 신예 김고은이 김혜수와 함께한다는 점이 관객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울러 ‘차이나타운’의 다른 흥행 요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벤져스2’와 마찬가지로 다른 경쟁작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개봉 첫날인 지난달 29일 3976개 스크린 가운데 443개(11.2%)를 차지했으며 상영회차는 1만3518회 가운데 277회(15.2%)였다. ‘어벤져스2’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차이나타운’의 영화 사이즈치고는 적지 않은 수치다. /연합뉴스

